

‘아들 김준’이 털어놓는 ‘아빠 조정석’



극중 아들과 아빠로 등장한 김준(왼쪽)과 조정석이 다정하게 귀속말을 나누고 있는 tvN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한 장면. 사진제공 | tvN

아빠는 장난꾸러기... ‘손 파도’ 기술 끝내줘 야외촬영 때 아빠 인기 짱... “팬들 엄청나요”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슬의생) 시리즈에서 ‘베스트 커플상’을 뽑는다면 이들을 빼놓을 수 없다. 바로 이의준 역의 조정석과 아들 우주를 연기한 김준이다. 특히 김준은 “난 아빠만 있으면 돼”라며 아빠보다 더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남다른 ‘부자 케미’의 주역으로 꼽힌다.

실제 촬영현장에서는 어땠을까? 14일 만난 김준은 ‘조정석 아빠’와 맞춘 호흡을 묻자 ‘엄지 척’했다.

● 조정석 아빠는 장난꾸러기!

낮을 가리는 김준과 친해지기 위해 조정석이 선택한 방법은 “끊임없는 장난”이었다. 제작진이 유튜브로 공개한 촬영현장 영상에는 조정석이 김준을 품에 안고 장난을 치는 모습이 많이 담겨 있다.

김준은 “조정석 아빠가 자주하는 손장난”이라면서 직접 손을 들어 시범을 보였다. 손가락을 파도 모양으로 구불구불 움직이면서 “신기하죠?”라고 되묻기도 했다. 손으로 주는 ‘브레이크댄스’인 셈이다. 댄스는 조정석의 트레이드마크이기도 하다.

● ‘사람들이 ‘조정석 아빠’ 엄청 알아봐’

김준은 “딱 한 번 길가다가 ‘우주다!’ 하고 알아본 사람이 있다”면서 “사진을 함께 찍어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정석과 야외촬영을 하는 날은 다르다. 김준은 “조정석 아빠와 손잡고 핫도그를 사먹는 장면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깜짝 놀랐다”면서 “사람들이 다 조정석 아빠를 알아봐 정말 신기했다”고 회상했다. 조정석이 유명한 배우인 것을 잘 모르는 ‘어린이’ 김준의 순수함이 드러난다.

● “조정석 아빠, 보고 싶어요!”

‘슬의생’은 16일 시즌2를 마무리했다. 김준은 이달 초 촬영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인사를 나눈 조정석을 떠올리면서 “별써 보고 싶다”고 말했다.

지금이야정이 담백 들었지만, 모두 처음 보는 어른들만 있던 첫 대본 리딩 날에는 그만 ‘영!’ 하고 울어버리고 말았다. 김준은 “처음에는 다들 무서웠지만, 모두가 잘해주셔서 나중에는 전부 좋아졌다”며 수줍게 웃었다.

배우들과 제작진이 다시 모일 날도 기다리고 있다. 김준은 “다시 만난다면 조정석 삼촌과 신원호 감독 삼촌한테 꼭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국민 귀요미’ 슬의생 아역배우 김준의 ‘슬기로운 연기자생활’



“슬프지 않아도 ‘큐!’ 떨어지면 눈물 펑펑”

“저도 명함 한 장 주세요!”

아역배우 김준(7)이 불쑥 고사리 손을 내민다. 16일 대장정을 마친 tvN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슬의생) 시즌2로 출연진과 시청자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귀여운 얼굴 그대로다. 대체 명함이 뭔지 알까 싶어 왜 필요하냐고 물으니 “반듯한 네모 모양의 종이 예뻐서”란다. 준이 어머니는 “(준이가) 요즘 누가 명함을 꺼내지만 해도 달려가 받아온 것이 벌써 한 통 가까이 된다”며 웃었다.

김준은 극중 조정석의 아들 우주를 연기하면서 수많은 ‘랜선 이모·삼촌·누나’(네트워킹)를 연결하는 랜선과 합쳐져 만들어진 ‘손 파도’ 팬들까지 만들어냈다. 요즘엔 “할 수 있는 ‘하트 포즈’가 네 개나 된다”며 자랑한다. 인터뷰 전날 아빠와 함께 연습했다는 ‘손 파도’ 포즈도 척척 해낸다. 함께 온 두 살 터울의 형이자 역시 아역 연기자인 김을(9)과 장난치다가도 사진 한 컷만 더 촬영하자는 말에 급세 다시 포즈를 취하는 ‘프로’다.

● “연기는 형 따라 시작, 재미있어요!”

김준은 2019년 겨울부터 지난달까지 2년 가까운 시간을 ‘슬의생’과 함께 했다. 극중 “매미가 우화(탈피)하면 캠프 가는 거다!”라며 아이답지 않은 ‘달변’의 캐릭터로 등장해 신 스타일로 당당히 자리매김했다.

촬영현장의 유일한 아역으로 아빠 조정석과 아빠 친구 유연석, 정경호, 전미도, 김대명 등 모든 배우의 사랑을 듬뿍 받은 것은 물론이다. 한 번 보면 빠져들 수밖에 없는 톡톡 튀는 매력을 고스란히 전하기 위해 김준과 나는 대화를 최대한 살렸다.

-지금 사는 곳은 어디예요?

“대전이에요. 촬영 있으면 엄마랑 형이랑 차 타고 (촬영현장에)와요.”

-연기는 언제 처음 시작했어요? 오디션 볼 때 긴장 안 돼요?

“형이 먼저 연기했었고, 저는 따라다니다가 여섯 살(만 5세) 때부터 했어요. 근데 오디션이 뭐예요? (오디션의 의미를 설명해 주자) 아아! 긴장 별로 안 해요. 나는 ‘쌍. 남. 자’니까요! 하하하!(옆에 있던 어머니



김준은 16일 마친 tvN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리즈에서 극중 조정석의 아들 우주를 연기해 시청자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귀여운 매력에 묻어나는 미소로 다양한 포즈를 척척 해내면서는 “이런 거 재미있다”며 연신 웃음을 터뜨렸다. 주현희 기자 hth1147@donga.com

엄마·형이랑 놀면서 대본 연습 “대사가 주르륵 나와요” 올해 초등학교 입학...연기도 공부도 재미있고 신기해요 형과 틈만나면 랩 연습...래퍼 겸 연기자가 제 꿈이에요



“말은 저렇게 해도 지금 정말 긴장한 모습”이라며 웃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촬영현장이 있나요?

“조정석 아빠랑 캠프하는 장면 찍을 때 산이 예뻐서 좋았어요. 그날 엄청나게 뛰어 놀았어요. 아, 근데 그 위까지 걸어 올라가야 하는 건 힘들었어요. 에어컨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연기, 재미있어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렵긴 한데 좋아요. 대본은 엄마가 옆에서 읽어주는 거 듣고 외워요. 형이 많이 도와줘요. 형이랑 역할 놀이 하면서 외우기도 하고요. 그럼 가서 외우듯 주르륵 입에서 나와요.”

-우는 연기도 엄청 잘하던데요?

“영양 우는 연기할 때에는 우주의 영혼을 담아서 해요. ‘내가 우주다, 내가 우주다’ 하면서요. 조정석 아빠가 다친 거 보고 울

어야 할 때는 사실 별로 슬프진 않았어요. 해해. 근데 ‘큐!’ 하니깐 막 눈물이 나서 잘했어요.”

● “내 꿈은 래퍼 겸 연기자!”

초등학교 1학년생인 김준은 학교생활과 연기를 병행하고 있다. 간혹 “촬영장 안가?” 하고 먼저 물어볼 만큼 연기를 재미 있어한단다.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수학”인데, 문제를 풀 때면 “신기하고 좋은 기분”이 든다.

-학교 친구들은 준이가 드라마 나온 거 알아요?

“네. 그냥 ‘너 TV에 나오더라’ 하고 말던데요? 친구들이 알아봐서 신기하지 않느냐고요? 아뇨, 별로요. 애들이 그런 말 하면 ‘아, 너 어제 드라마 봤구나’라고 생각해요.”

-학교 끝나고 뭐하니지 궁금해요.

“집에 와서 손 씻고, 형이랑 놀다가 공부할 때도 있고요. 랩 연습할 때도 있어요.”

-랩 좋아해요?

“네. 엄청 좋아해요. 꿈이 래퍼 겸 연기자예요.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래퍼 머쉬베놈이예요. 엄청 빠르게 랩을 하는 아웃사이드의 노래도 할 줄 알아요.”

-노래 한 곡 해줄 수 있어요?

“제일 잘하는 랩 하나 해볼까요? 원슈타인·립보이 형이 부른 ‘프릭’(Freak)이예요. 잘 들어보세요. ‘해가 떨어진 다음에 난 집 밖에 나왔지~/반대로 살아가는 하루 아침이 밝아오면 되려 눈이 빨개져~.’ (뜨거운 발음으로 완창했다)

-와! 정말 잘하네요. 옛날 ‘쇼미더머니’ 나가도 되겠는데요?

“어, 진짜로 ‘쇼미더머니’ 나가볼까요? 대신 엄청 나중에. 지금은 안 돼요, 히히.”

-이번 추석 때에는 뭐 할 거예요?

“형이랑 삼촌누나랑 같이 놀 거예요. 슬래집기도 하고, 운동장에서 축구도 할 거예요.”

-한복이 잘 어울려요. 시청자 이모와 삼촌들에게 인사 남겨주세요?

“저 이거 연습해왔어요. 하나, 둘, 셋, 시청자 이모·삼촌들! 풍성한 추석 보내세요. 아아, 코로나 꼭꼭 조심하시고요!”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뇌가 색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강주현의 퍼즐월드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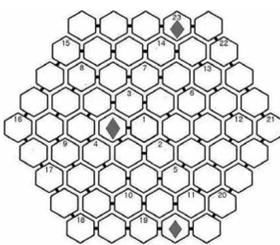
■ 스토쿠문제

		9			2			
			1	4				
8		4	9		2	1		3
3	5			6			9	1
			5		1			
1	9			4			2	5
6		5	4		9	7		2
			6		5			
		1				9		

■ 스토쿠정답

9	5	6	2	8	1	3	7	4
7	1	8	9	7	9	3	2	6
2	8	7	6	1	7	5	8	9
5	2	9	8	6	7	2	6	1
7	8	1	6	5	9	9	7	2
1	6	7	7	2	8	9	5	3
8	7	1	2	5	6	7	9	8
6	9	5	7	8	1	2	3	4
8	7	2	9	3	4	6	1	5
5	7	6	2	1	3	8	9	7
7	8	9	5	7	1	2	7	4
1	2	7	7	9	8	5	6	3
7	5	1	6	7	7	9	8	4

■ 낱말문제



■ 열쇠

- 01. 관례·흔레·상례·제례의 총칭.
- 02. 병을 물리쳐 목숨을 연장함. “병ㅇ연ㅇ”
- 03. 한 시대를 바로잡아 건질 만한 큰 인재.
- 04. 거의 멸망하게 된 것을 구원하여 도와준 은혜.
- 05. 신과 바다같이 크고 넓은 은혜.

- 06. 말을 알아듣는 꽃이라는 뜻.
- 07. 꽃이 피려함을 알리는 바람이라는 뜻.
- 08. 풍년을 들었으나 곡가가 너무 싸서 농민에게 타격이 심한 현상.
- 09. 겨우 배겨 나감. 억지로 버티어 감.
- 10. 눈을 슬그머니 감는 모양.
- 11. 어떤 일을 하는데 때가 아직 이룸.
- 12. 손님을 초청해서 아침 식사를 베푸는 모임.
- 13. 승차권 등의 여러 회분을 한 통치로 하여 파는 표.
- 14. 목적을 위해 남을 교묘하게 속이는 모략이나 술수.
- 15. 물 위에서나 육지에서나 다 활용할 수 있는 것.
- 16. 나사 모양으로 되어 늘고 주는 탄력이 있는 쇠. 스프링.
- 17. 철없어 보이는 어리석은 사람.
- 18. 보행을 도우려고 짚는 막대기.
- 19. 사람이 살아가는데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풀 다음 ◆칸을 이 어놓으면 결혼기념식(50주년) 명칭이 됩니다.

